

환경행정의 효율화와 민간참여

박영숙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

I 들어가는 말

「모범적 환경국가의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환경 비전 21」은 환경부가 연초에 발문 했을 때라면 재는 3월 21일에는 대통령에 섰던 김의 재배치 등위한 「환경복지자강」을 발문해 「환경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등의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의 장미빛 구상이 연발되는 한때로 심각한 환경외리현상이 이는데 불리히 개회적으로 이루어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은 당혹함을 금할수가 없다.

(UNEP)

(UNDO)

서울대기회 개회, 유엔환경계획, 유엔개발계획 및 세계은행이 4월 18일에 공동발문한 「96~97년 세계의 지평: 지구환경 가이드」라는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베이징, 멕시코 및 카이로와 함께 공기로연이 세계 최악이 되는 도시 등업등이러는 하노이 5월중의 반이상이 기온치를 초과 하였으며 세계의 오존평화기 원하는 지평에 이르고 있다. 6월에 들어와서 내리기 시작하는 빗물에 섞여 방류한 산해폐수에 의해 한강강과 낙동강에는 수십만 마리의 폐공을 당한 물고기가 떼어 죽었다. 이로 인해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업주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대통령이 나서서 환경외리현에 대해 자형에 이르는 법령 제고행으로 다시 시작하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빗물이 지내려 양이 수자공공로 개회회의 석은 물을 수차례에 걸쳐 엄청난 양을 무단방류해 공기업이 해양오염을 서슴치 않는 것이 어려운 일이 벌어져 환경단체와 어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5월 31일 제 1차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이 재로는 해양정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하는 36부의 해양정책도 달리게해 하네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해양정책기구를 달로리리며 정부는 중점적인 해양개발과 이용 보전정책을 전담부를 신설키로 한다고 발문한 직후에 이러한 일이 다. 그렇기 양으로 환경 후계는 36부 36부기관이 유장서서 저질르고 있는 논쟁을 받고 있는 차이에의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드러난 환경행정의 효율성이란 최고정책기관 36부의 선언이나 종로수업의지기 갈아려 36부의 구체로 개승하리 알리는 도일을 확실히게 하여 준다. 개개의 오염원인자의 환경외리현과 환경친화적인 식재지리 없이 환경행정의 효율은 성취할수 없다. 모든 지역(회 주민이 환경행정을 함께 해야 쾌락한 지역(회 되고 지독개승한 지구환경을 만들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행정이란 관주도 그것로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고 있으며 민간참여란 고작해해 자문기구로서의 형식적인 역할이 불과 했었던 것이 현재까지의 우리 36부의 관행이 다. 그러나 6.29 지방자치제 개회 이후 활발한 민선자치시대의 개회로 함께 자치회에 들어와서 36부의 각부서에 민간기구(시민개회회)를 설치하는 등으로 민간참여의 확대를 시도 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렇다고 시로리해게 문제를 해결 ①

해부조직은 아니다. 행성계에 있어의 실권력의 민선행정은 사실은 지로로써
관주도의 행성계체계에 있을 때와 관주도에 있어서는 권력으로부터 해부
받을 기체라고 있는 민선행정에 있어서는 생소하다. 이리하여 우리민에게 권력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민의 도덕성에 결함이 있다. 일사불란하게 민주주의는
행성계관제에 비하여 이익제기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사회개혁의 대의
민주주의의 실행으로 행성계의 통일행정을 위해 상호간의 해충을 없애는
으로 수기롭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 글에서는 환경행정의 중요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의 하나로써의
민간참여 (시민, 주민참여) 문제를 그 필요성과 방안 그리고 주의할 점을
중심으로 기술하여 환경의 환경행정을 위한 시민과 함께 하자는 정책
대위의 행하여 감행과 비행을로 향후대행으로 제시하려 한다.
환경행정에 있어서의 민간 참여의 필요성

II

II-1 양의 한 쌍 문제에 대한 답

인구의 환경 문제는 인간이 생태계를 인간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세적인 인간의
것인 양 애제로 삼았기 인자, 지구의 자원으로 자립 능력의 한계에 대한 뒤늦은
깨달음 내지 보 무지 그런 기술 발전에 대한 맹신 또는 낙관에서 비롯된 것이라
되기에 이르러서 문제인식도 깊어지고 있으나 구체적 관료 있는 근본적인은 지구의
한라면 무어 해로 제지라 대항할 인연된 대량생물, 대량소에 맞 대량
재계의 생물과 사회 양쪽에 우리도 두고 있라 해야 한다. 여기에
인구증가와 도시화의 문제라 환경문제 앞면에 추진되고 있라 본다.

살아있는 것이 질병으로 앓는 환경에서 살아가고 우리의 우선과제는 바로
우리들의 삶의 양식에 대한 반성이다. 인구가 세계의 70%의 인구를 지구
표면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소위 서진국의 생활양식을 추구하면서 인간
을 비롯한 모든 생물의 삶의 터전인 해안가에 있는 지구가 과연 지속
가능하겠는지 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하루생활양식으로써의 대응전략이 아닌 사회경제정책으로서의 사회정책에
집중 정책적인 개입으로서 생산과 소비 양식의 획기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 생산은 관리권을 통해 환경친화적이어야 하고 높은 품질 소비관행
에서는 친환경, 리사이클, 업사이클 폐기물 처리는 환경에 부담을 주도록
해서는 안 된다. 생활에는 불필요 수거 및 경제학 부가가치 수반된다.
그러나 그러한 생활습관을 지속적으로 지속함으로써 하기에 사는 것은 행복의 뜻이다.

지구환경문제에 이따위 처참하고 부합해로 그해결의 실마리는 오직 바다를
각인 개개인이 이 지구의 수리에서 작으나마부터 환경친화적으로 처리하는 데서
찾힌다. 「지구적」으로 생각하여, 지역적」으로 행동하라! 라는 말이 새겨져
그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숲이 없기때문에 대기를 깨끗하게 한다. 이러한
생태는 지반대도 깨끗하게 하여 대기로 노랗게 하는 일이 없다.
깨끗한 기온과 습도가 산악지역에 있어 함께 풍성한 자연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있다. ③

3275 10/1/50

III-3 민원지(방 개조)에 대한 민원(시비, 주비) 처리

민선지방자치시에서는 중앙정부의 규제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에 의한 지역주민의 「지역적 공동체」 건설을 지향하는
것이다. 민선지방자치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참여이다.

지난 300 년간 ① 경제에서의 자본주의, ② 정치에서의 국가권력, ③ 사회에서의 산업주의, ④ 전쟁에서의 군국주의 4대 기둥으로 이루어진 양식을 지배해 온 근대성은 인간에게 통렬한 20 세기를 전개 할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소수의 불행 등으로 인한 계급 갈등, 자연재해 양식 등으로 인한 환경 문제, 핵무기 등으로 인한 대량 학살로 인한 비인간적 상황 그리고 국가권력의 개인적 지배와 인권 억압 등으로 인간 사회의 현상이 빛이 없었다. 이러한 현상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비록 노동운동, 환경운동을, 평화운동을 그리고 민주화 운동 인권운동으로서 이른바 후기 근대성의 시민운동의 대를 접어들게 하였다.

50여년의 대가(代價)를 경험한 우리사회에서 시민사회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법에 입각한 중립적인 사회주의
정당으로서 우리사회에 시민운동의 기반인 중산계층의
정당 확대 및 사회구조의 다원화를 가져다 주어야. 그리고 시민의
이익은 국내영역에서 지구화체제로 그 역할을 넓히기 위하여
세계화체제로 행정양상을 지닌 중산사회에 등장하게 되었다.
신중산층에 의해 만들어진 36의에서 신중산의식은 '민중회의
운동'을 이루며 마침내 1995(即 6.27 선거)로 신중산당으로
신중산층에게 화했고 더이상 중산계층의 '중산주의'가 시민의
신중산층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 이제 시민의 중산당과
신중산층에 대해서 이상적 지역공동체로 시민의 뜻대로 움직여
갈 수 있는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다 (36의중 '96 신중산당시책
시민회의 - 신중산주의 시민회의론)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은 사회생활에서 스스로의 의무를 충실히 함으로써 얻는 것이며, 또한 사회생활에서 타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 공동체 생활을 건설하는 데에 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각계 각층의 구성원이 자기의 몫을 다 하고자, 국가적, 사회적, 지구적 문제에 부응하는 데에 대담하게 참여하게 하는 데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의 자각과 참여가 사회생활의 대담하게 참여하는 행동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은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 사회생활에서 얻는 것이다.

미국이 샌프란시스코 회의의 경우의 예가 현재의 방향을 잃어
있다. 오늘날 세계가 다시 한번 무질서이며 위험적인 상태에 있는
후회없이 미국의 독립성과 자생력을 상실하여 지역적인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공동체적 활동을 진흥시켜왔다고 보고 있다. 기대대로 안고있는 시민의식, 소속감, 자부심, 고령자의 사회적응을 위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공동의 책임체제 이인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공동의 책임체제는 개개인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서로 경쟁하고 이익을 희생시키는 집단으로 약화되어 공동체적 미관기대로 대중이 한자리에 모여 유익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로 협력하여 공동체적 사회를 건설한다. 공동체적 사회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리더십에 지역주민의 참여라고 신원리사회소회의의 위치가 인 이다. 이그노는 사회는 말한다. 시민참여의 사회적, 사회적 환경은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그들의 일상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신원리사회소회의의 역할은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의 의사결정에 크게 의존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 주도부서에는 시민위원회로 구성되어 이위원회는 지역사회를 관장하며 예산을 심의하는 것을 물론 부서의 행정직을 임명하거나 해고할 수도 있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평화시민위원회는 평화총량을 임명, 해고할 수 있으며 평화관의 업무를 감독하며 평화정보를 제공하고 감독하고 있다. 이 도시에는 약 500명의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시장 임명이 400여명 위원회의 임명이 400여명이라고 한다. 이들은 다양한 행태를 시장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위원회가 시민에게 부여한 권한과 권위에 대한 이론이 없으므로 이러한 진정성은 다수의 공동체로 형성되기 위하여는 시장의 권한을 시민에게 어느 정도 양보해야 한다고 권위자로 알려져 있다 (이른, 이구노는 1995. 10 시민참여로 시민의 참여를 위한 국제 세미나)

위원회에는 민선리사회소회의가 개입되어 시민위원회가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 행정을 운영하고 운영하게 된다

(시민위원회에서도 시장과 시민과 함께 예산을 짜고 부서를 임명하고 해고할 수 있다) 시민참여의 문이 개방될 때 신원리사회를 확대할 단계로 인식하고 있으며 신원리사회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신원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로 대두되는 한계 신원리사회가 지역주민의 참여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한다. 신원리사회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환경행동을 시민과 함께 하기 위해 '신원리사회'를 신원리사회 (95. 11. 22 임명, '96. 2. 14 리사회장 회제 개칭) 이 위원회는 신원리사회의 각계대표(기생, 시민대표 25,

시민헌정준칙에 25, 언론계 14, 학계 9, 사회계 7, 연구도 5, 예술계 5, 종교계 4, 기술계 4, 상공계 2)로 구성되어 있다. 헌정준칙, 시민헌정준칙, 언론계, 학계, 사회계, 연구도, 예술계, 종교계, 기술계, 상공계 2)로 구성되어 있다. 헌정준칙, 시민헌정준칙, 언론계, 학계, 사회계, 연구도, 예술계, 종교계, 기술계, 상공계 2)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시민헌정준칙의 (비공식적) 「시민헌정준칙」의 성격과 특징에 대해 보면, 이준에게는 위헌적 성격, 구성원적 성격, 기능적 성격, 헌정준칙의 성격, 언론계, 학계, 사회계, 연구도, 예술계, 종교계, 기술계, 상공계 2)로 구성되어 있다. 헌정준칙, 시민헌정준칙, 언론계, 학계, 사회계, 연구도, 예술계, 종교계, 기술계, 상공계 2)로 구성되어 있다.

III. 환경행동에의 인간참여 양상

환경에의 인간참여 양상에는 ① 기호제로부터 참여로서 선거권 환경행동을 통해 주민의 욕구를 반영하는 것 ② 합제로부터 참여로서 시·도·군·자치구·읍·면·시의사회의화하는 것 ③ 시민운동 등이 민간단체 활동으로 총합 공동체로서의 참여를 결과하는 것 ④ 새로운 양상으로서는 민선제방치시제이후 지리체 등이 주체행위나 환경행위 제고 등을 위해 주민의 참여의 향유로서 구상하고 있는 시민위원회 활동이 있다.

환경에의 인간참여 양상에서 중요한 것은 ① 의회권이 아닌 상설기구 참여 ② 강제로서가 아닌 자발적 참여 ③ 행정으로의 통제로부터 아닌 실질적인 참여 ④ 행정대상으로서가 아닌 행정주체로서의 참여(동반자적 참여) ⑤ 기호제로부터 참여하는 것이 아닌 참여의 범위가 가능한 참여 등이 다.

사전에 상설기구로 대체해야 하고 개개인의 일상 활동에서의 실천이 문제해결의 열쇠가 되고 있는 환경행동에 있어서의 인간(시민, 주민, 기업, 행정조직 등)의 참여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더욱 중요하다.

환경행동에의 인간참여는 모든 생활영역에 걸쳐서 동시에 되어나가는 문제의 특성상 다음과 같은 참여 양상이 있다.

1) 기업체로서의 참여

기업체로서도 환경친화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환경행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환경친화적인 생활이란 개인의 일상생활의 환경적 책임을 완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 절약, 쓰레기减量, 자원 재활용, 대중교통수단 이용, 물 절약 및 재이용, 적정량의 폐기물 배출 등의 소비행위를 실천하고 있는 기업체를 말한다. 환경친화적인 생활은 물질을 구하기 위해 자원을 버리기까지의 원리법을 친환경적으로 고려하며, 조립조립식,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는, 수리가능한, 적정행위인 지주해당 물질이 아닌 등을 주체기초로 여기는 녹색소비 생활을 하는 것이다.

정부의 사회적 재원들을 분리수거, 쓰레기减量을 위한 공방제 참여, 수질보전에 필요한 재원들 등의 생활환경 위키기들은 생활의 근간에서 환경을 지키는 일로서 환경행동에의 참여이다.

2) 제해체로서의 참여

제해체로서의 참여로는 정부의 환경행동과 기업체의 환경행동 양상을 감시하며, 자정(自正)환경을 지키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단체의 활동으로 환경을, 본래의 모습대로 되돌려 줄 수 있는 시민운동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회단체들은 문제해결에의 참여의 동력을 위한 운동에에 기반하는 것이다. 이점 때문에

앞서와 대동특히 무리나리 못하느라 우리 시민운동은 힘있다 ⑧

환경행동은
정부의 사회적 재원들을 분리수거, 쓰레기减量을 위한 공방제 참여, 수질보전에 필요한 재원들 등의 생활환경 위키기들은 생활의 근간에서 환경을 지키는 일로서 환경행동에의 참여이다.

12422/650대장주거지2907

서울의 경우 지동화 대수는 1970 (즉 16년) 때, 1980 (즉 20년) 때, 1990 (즉 24년) 때이며 1995 (즉 28년) 때를 같이 하므로 2016년에 달하는 해까지 어느 한 시에 이르러 불투명한 상태로 지동화 현상이나 약해. 지동화 동시 생활권으로 되어 있는 수도권에 150만 명의 인구가 300만 대에 가까운 지동화 대일 동행수치는 2.710만 명에 달하고 있다. 한편 대일 지동화의 연평균 증가율은 23% Km에서 동행의 9% Km, 수도권 16% Km에 미치지 1.4~2.5 배가 되고 있으며 러시아워시간에 12시간으로 늘어났고 지동화로 인한 교통혼잡으로 수도권에서의 약 600만 411만 대의, 특히 장수부터 190만 대에 이르고 있으며 에너지 소비량은 20.340억 kWh에 달하고 있다. 지동화 에너지 배출량은 대기오염을 심각히 악화시키고 있다. 또한 도시환경의 급속도로 증대되고 있다 (지동화 동행 대일 동행 196 참조)

리옹의 가는 오솔길은 지구본상에서 오솔길의 같은 지구로
리옹에서 (리옹) 같은 지역으로 리옹, 지네 오솔, 리옹, 스모그, 해안,
완전리온, 정수리온, 수, 각종 동물, 식물, 면지, 소문, 리옹에 이르는
국가로 리옹에 이르기까지 완전리온 리옹으로.

[illegible]

(수익이 대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종과 차기차를 묶어 P2로 의 61%에서 P3으로 72%로
재P4로 77%를 늘려 있다

1983년 10월 10일 이 시점에서 피해인사 1,344명 중 1,000명, 1983년
 피해인사 1,344명 중 1,000명, 1983년 10월 10일 이 시점에서 피해인사 1,344명 중 1,000명, 1983년
 10월 10일 이 시점에서 피해인사 1,344명 중 1,000명, 1983년 10월 10일 이 시점에서 피해인사 1,344명 중 1,000명, 1983년

이제 국가를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단결과 협력이 중요하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련을 함께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지나간 것을 더러는 것일수록, 실패를 하는 사람, 잘못, 갖다, 조를 제쳐
놓아 버리고, 매번 실패하는 등의 이르기까지의 행동에 관하여
사람의 행동을 위한 동기를 관여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

일방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④ 관공라기 1120인
반지름 1120인
도보, 1120인
222 1120인
수한 1120인

$$H^2$$

(11)

(기여, 74인권을 포함) / (살은 이니 경향하고 있음 41이)

정제된 대로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게 한다. 예로부터 사람은 능동적 원동력
을 지니고 있다. ① 대공평을 이루는 것 ② 기치를 세우는 것 ③ 비록 근심
하고도 그 기치를 세우는 것 ④ 기치를 세우는 것 ⑤ 기치를 세우는 것
이러한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다.

IV 민간 차액에 의해 이루어진

[illegible][illegible]

↓ 외형상으로 지상과 지하로 나뉘고 있어 지하 층상과 지하 대의 차이
구분과 지하로 나뉘고 있어

(비록) 반쪽짜리라는 | 그간의 민생지상개혁은 하나라도 222에
한편으로의 지상개혁의 충실은 의사가 있기를 뜻하여 222
지상 | 그간의 민생지상개혁은 민생지상개혁을 개혁하는
민생지상개혁의 지상개혁을 개혁하는 개혁하는 개혁하는

[illegible]

시정개악
시민참여
문제도

이것이 판해방이 시작되고 시민과 함께 해방을 이루기 위하여
정부는 해방을 위하여 해방을 위하여 해방을 위하여 해방을 위하여
시작을 위하여 해방을 위하여 해방을 위하여 해방을 위하여 해방을 위하여
4대 시민의 해방을 위하여 해방을 위하여 해방을 위하여 해방을 위하여
이것이 해방을 위하여 해방을 위하여 해방을 위하여 해방을 위하여
이것이 해방을 위하여 해방을 위하여 해방을 위하여 해방을 위하여
이것이 해방을 위하여 해방을 위하여 해방을 위하여 해방을 위하여

< 참고 문헌 >

- 1993-Adams Rogers 'The Earth Summit' Global View Press
- 1995-Art Agnes 'Toward a Newer City' 서울시에서 1996년 3월 31일
- 1993-P. McCully 'NGO Participation and Evaluation' The Road from Rio
- 1994-일본 경제 협력 기구 '지구환경회의에서의 시민, 기업, 그리고 정부' (1994년 10월 10일)
- 1991-'지구환경회의에서의 시민' 일본 지구환경청과 제5권
- 1996-'서울의 환경문제에 대한 추진력' 서울의 환경관리국
- 1996-'96 서울의 환경종합대책' 서울특별시 환경관리국
- 1994-김희성 '지방자치에서의 환경정책' 한국환경기술개발원
- 1996-'서울의 지역개발' 서울개발연구원
- 1996-'녹색서울시민위원회 워크숍' 녹색서울시민위원회
- 1996-김영희 '지방자치에서의 환경정책을 위한 정책연구' 환경정책연구소
 김영진 '환경부에서 지방자치에서의 환경정책을 위한 연구' (지방자치에서의 환경정책을 위한 연구)
- 1996-조순 '서울지방자치에서의 환경정책' 서울특별시 환경연구소
- 1996-이병호 '수도권을 지역발전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연구' 서울특별시 환경연구소
- 1996-김영희 '민간환경회의에서의 시민참여' 서울특별시 환경연구소
- 1995-박영호 '94 지구환경회의에서의 시민참여' 서울특별시 환경연구소
- 1994-'지배층에서의 지구환경 회의' 세계일보
- 1995-'환경정책에서의 시민참여를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 서울환경연구소
- 1994-'환경정책에서의 시민참여' 서울특별시 환경연구소
- 1993-'시민'을 위한 환경 정책' 환경정책연구소
- 그리고 '환경의 환경정책을 위한 민간단체의 역할'